



시민건강이슈 2018-13

PHI Issue Paper 2018-13

**방글라데시 다카
제4차 민중건강총회 참가기:**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시민건강연구소
PEOPLE'S HEALTH INSTITUTE

< 차 례 >

1. 들어가며	1
2. 민중건강운동(PHM) 소개	3
3. 제4차 민중건강총회(PHA4) 소개	6
4. 제4차 민중건강총회(PHA4) 프로그램 자세히 보기	9
5. 나오며	22

< 글상자 차례 >

<글상자 1> 민중건강운동(PHM)에 대한 간략한 소개	1
<글상자 2> PHM: 되기, 참여하기, 후원하기	5
<글상자 3> 민중건강총회(PHA) 발자취	6
<글상자 4> PHM Korea와 함께 할 개인 또는 단체를 기다립니다.	24

< 그림 차례 >

<그림 1> 제4차 민중건강총회(PHA4) 배너	6
----------------------------------	---

〈 사진 차례 〉

<사진 1> 11월 15일 방글라데시 도심 집회를 보도하는 저녁 뉴스	10
<사진 2> 11월 15일 PHM 동남아시아와 태평양(SEAP) 지역 회의	10

〈 영상 차례 〉

<영상 1> 제4차 민중건강총회 스케치 (1) 사람들의 삶이 이윤보다 먼저이기를 촉구하다.	8
<영상 2> 제4차 민중건강총회 스케치 (2)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8
<영상 3> 제4차 민중건강총회 개회식 (1) 개회식과 개막공연	11
<영상 4> 제4차 민중건강총회 개회식 (2) 민중건강운동(PHM) 리뷰	12
<영상 5> 본회의 주제 1: 발전과 건강의 정치, 경제적 지형	13
<영상 6> 본회의 주제 2: 건강을 파괴 또는 증진하는 사회, 물리적 환경	14
<영상 7> 본회의 주제 3: 정의롭고, 책무성 있고, 포괄적이며, 통합적이고, 네트워크화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건강체계 강화	16
<영상 8> 본회의 주제 4: ‘모든 이에게 건강’을 위한 조직화	17
<영상 9> 제4차 민중건강총회 5개 주제별 성명서 발표	19
<영상 10> PHM Korea의 PHA4 참가기 영상 스케치	23

1. 들어가며

시민건강연구소는 2015년 4월부터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 PHM)에 참여해 왔다 ([“PHM Korea 활동을 소개합니다” 바로가기](#)). 민중건강운동은 전 세계의 풀뿌리 건강활동가, 학자, 정책결정자와 실무자, 시민사회조직, 그리고 학술 기구들의 국제 연대 네트워크로, 전 세계 80개 이상 국가에서 PHM이 활동하고 있다 ([PHM Global 블로그 바로가기](#), [PHM Korea 블로그 바로가기](#)).

<글상자 1> 민중건강운동(PHM)에 대한 간략한 소개

민중건강운동(PHM)은 민중건강헌장(People's Charter for Health, [한국어 전문 바로가기](#))의 정신에 따라,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건강결정요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중건강헌장은 PHM 활동의 기본 틀이다. 개인 또는 조직은 헌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PHM의 일원이 될 수 있다([헌장 지지 바로가기](#)). 헌장은 1978년 알마아타 선언의 원칙에 따라, 건강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안건으로 보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간주한다. 이는 ‘모든 이에게 건강(Health for All)’이라는 목표 하에, 불평등과 빈곤, 착취, 폭력과 부정의를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PHM의 비전: “공평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는 더 나은 세계라는 우리의 비전의 핵심이다. 즉 모든 이의 건강한 삶이 현실인 세계, 모든 생명과 다양성을 존경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세계,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의 재능과 능력의 번성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 우리의 삶을 빛나는 결정들이 민중의 목소리에 의해 인도되는 세계다.”

목표:

- ‘모든 이에게 건강’을 공평하고, 참여적이며, 부문 간의 운동을 통해, 하나의 권리문제로서 증진한다.
- 사람들이 지불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 양질의 보건의료, 교육, 사회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다른 보건기구들을 옹호한다.
- 모든 건강정책과 프로그램,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의 형성, 집행, 평가에서 민중과 민중조직의 참여를 증진한다.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건강을 지역, 국가, 국제적 정책결정의 최우선 과제로 증진한다.
-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 건강 문제에 대한 그들 자신의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격려한다.
- 지방 당국, 중앙 정부, 국제기구 및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PHM Korea를 표방하고 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났지만, 그간에는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건강 관련 소식들을 영문으로 확산하는 정도였다. 그러던 차에 2018년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제4차 민중건강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민중건강총회(People's Health Assembly, PHA)는 전 세계 민중건강운동 활동가들이 모이는 행사로, 대략 5년마다 열린다. 이번 제4차 총회는 PHM Korea 활동을 시작한 이래 첫 총회였다. PHM Korea 활동을 함께 해 온 노동건강연대와 공동 참가를 결정했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민중건강현장을 함께 읽고 토론하고, 미리 공지된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주제, 참가 단체와 발표자를 조사하여 숙지했다. 시민건강연구소 김선, 김성이, 김정우, 서상희 연구원, 노동건강연대 이나단, 정우준 활동가가 PHM Korea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2. 민중건강운동(PHM) 소개

PHM은 일종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국가, 지역, 지구적 수준에서 건강권과 건강 형평성 운동을 위한 의사소통의 통로와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의 ‘운동’으로서 PHM은 경직된 구조를 지양하지만,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국가별 네트워크(Country Circles): 국가별 네트워크는 각 국가의 필요에 따라 발전한다. 대개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공동 행동을 취하기 위해 모이는 느슨한 네트워크이지만, 하나의 조직으로 공식화될 수도 있다. 지역 혹은 국가에서 PHM을 조직하는 정해진 방식은 없다. 지역 맥락, 선택된 활동, PHM을 만드는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PHM Korea의 경우 현재 시민건강연구소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함께 하고 있다.
- 지역 PHM (Regional PHM): 지역 수준에서 PHM은 지지, 공유, 학습을 격려하기 위한 연합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내 협력은 지역 건강 거버넌스와 지구적 건강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옹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해당 지역에 특화된 사안을 중심으로 연대와 강력한 행동 기반을 구축한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South East Asia and Pacific, SEAP) 지역에 속하며, 이 밖에 남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동, 중앙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지역과 남미 원뿔꼴 지역 (Andean Region, Southern Cone Americas), 브라질, 인도, 유럽, 북아메리카 지역이 있다. (브라질, 인도와 같이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지역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 제휴 네트워크: 국가, 지역, 지구적 네트워크가 PHM에 제휴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Medecine pour le Tiers Monde \(M3M\)](#), [Medicus Mundi International \(MMI\)](#), [Health Poverty Action \(HPA\)](#), [Latin American Association of Social Medicine \(ALAMES\)](#), International People’s Health Council (IPHC), [Gonoshasthaya Kendra \(GK\) Peoples Health Centre](#), [Health Action International \(HAI\)](#), [Third World Network \(TWN\)](#), [HAI Asia Pacific \(HAIAP\)](#), [International Baby Food Network \(IBFAN\)](#)가 그것이다.

- 거버넌스 구조: 운영위원회(Global Steering Council, 주요 의사결정기구. 각 지역 대표, 지구적 수준의 각 프로그램 대표, 각 제휴 네트워크 대표, 자문위원회 대표로 구성),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ssion, 확대 집행 조직),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사무국(Global Secretariat, 집행 조직)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주기적으로 순환하며, 그간 다카(방글라데시, 2001-2002), 방갈로르 (인도, 2003-2006), 카이로 (이집트, 2006-2009),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2009 - 현재)에 위치해 왔다. 현재 케이프타운 사무국은 뉴델리에 있는 추가 사무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구적 수준에서 PHM은 지구적 정책 의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행동, 옹호, 대화를 지원한다. PHM 활동의 주요 측면은 네트워크 파트너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사안들에 대한 분석을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캠페인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다. PHM은 모든 수준의 건강정책 결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는 출판물, 의견서, 성명서를 준비하고 확산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지구적 수준의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지구촌 건강감시보고서(Global Health Watch, GHW):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보건보고서(World Health Report)에 대한 대안 보고서이다. 지금까지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8년](#) 총 5권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 국제민중건강대학(International People's Health University, IPHU): PHM의 가장 중요한 교육, 연구 프로그램이다. 그간 IPHU는 ‘건강을 위한 투쟁(Struggle for Health)’이라는 제목으로 40개 이상의 짧은 강좌(각 2주 과정)를 조직했다. 이 강좌들은 9개 국어로 20여 개국에 개설되었으며 60여 개 국가에서 1,500여 명의 민중건강운동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IPHU에 참가한 젊은 활동가들 중 많은 수가 이제는 PHM 국가별 네트워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PHM Korea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번 총회 직전에도 IPHU 강좌가 열렸다. 이번 강좌의 세부 주제는 젠더와 필수 의약품 접근이었다.
- ‘모든 이에게 건강’ 캠페인(Health for All Campaign, HFAC): 전 세계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사회 운동의 다양한 조직화를 위한 지구적 조직 틀이다. 건강체계의 구조적, 체계적 약

점을 다루기 위해 정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캠페인들은 건강체계(공적 체계의 방어와 사유화/민영화 반대 캠페인 포함), 의약품 접근, 식품과 영양, 젠더와 건강, 무역과 건강, 채취 산업, 노동과 건강 등 다양한 주제 축을 포함한다.

- 지구적 건강 거버넌스의 민주화 이니셔티브(WHO Watch): 지구적 건강 정책결정과 실행을 틀 짓는 정보의 흐름과 권력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위한 지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PHM 뿐만 아니라 [South Center](#), [Third World Network \(TWN\)](#) 등 여러 국제 조직 및 네트워크들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되었다. 현재의 초점은 세계보건기구(WHO)를 ‘감시하고(watch)’,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이래 세계보건기구(WHO)의 회의(집행이사회의 세계보건총회)에 대한 체계적 감시와 분석이 조직되고 있다. ‘감시자(watcher)’는 각 회의 전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한, 서로 다른 시민사회조직으로부터 발탁된 젊은 활동가들이다. 감시자들은 각 회의 전 1주간의 훈련 과정을 거친다. 지금까지 약 100명의 활동가들이 ‘WHO watch’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원거리에서 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지켜보았다.

민중건강운동에 함께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국가별 네트워크에 함께 함으로써 지역 수준, 나아가 지구적 수준까지 연대할 수 있다(PHM Korea 함께 하기는 [글상자 4](#) 참조). 이메일 그룹을 통해 지구적 수준으로 직접 연결되는 방법도 있다([글상자 2](#)). 더 적극적으로 WHO Watch 등 지구적 수준의 프로그램에 자원하여 참여할 수도 있다.

〈글상자 2〉 PHM: 되기, 참여하기, 후원하기

- 민중건강현장에 대한 지지 표명하기 ([바로가기](#))
- 이메일 그룹(“PHM-Exchange”) 활용하기 ([바로가기](#)): 경험과 교육 자료 공유, 연대활동, PHM의 입장 조정 등
- 후원하기 ([바로가기](#))

3. 제4차 민중건강총회(PHA4) 소개

〈글상자 3〉 민중건강총회(PHA) 발자취

- 제1차 총회는 2000년 12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렸으며 75개국에서 1,453명이 참가했다. 민중건강헌장을 만들고 발표하였다.
- 제2차 총회는 2005년 7월 에콰도르 쿠엥카에서 열렸으며 82개국에서 1,492명이 참가했다.
- 제3차 총회는 2012년 6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으며 90개 이상 국가에서 약 1,000명이 참가했다. 민중건강헌장의 분석을 심화시키고 갱신한 '케이프타운 선언'의 채택으로 막을 내렸다.
- 제4차 총회는 2018년 11월 열렸다. 2000년 제1차 총회가 열리고 민중건강헌장이 발표되었던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약 20년 만에 민중건강운동 활동가들이 다시 모였다. 73개국에서 온 1,400여 명(방글라데시 참가자 700명 포함)이 참가했다.



〈그림 1〉 제4차 민중건강총회(PHA4) 배너

PHM은 이번 제4차 민중건강총회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 지구, 지역, 국가 수준에서 건강과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과정과 정책들을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 PHM의 조직적, 프로그램적 활동들을 집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몇 년 간의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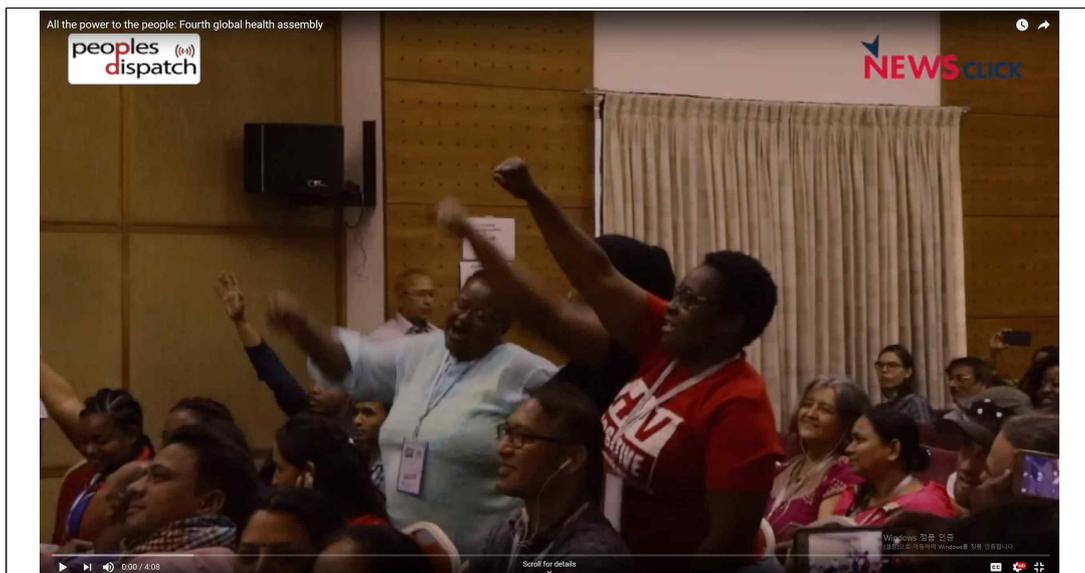
- 건강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개입하고, 정책 집행을 감시·추진하며, 건강체계의 기능에서 책무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향상시킨다.
-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범위의 실천가들을 참여시켜 건강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둘러싼 건설적 대화, 계획, 조직화를 촉진하고 지원한다.
- 건강 영역 안과 밖에서,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조율된 행동을 추진할, 새로운 지속가능한 구조와 역동을 시작한다.

73개국에서 온 1,400여명의 민중건강운동 활동가가 이번 총회에 참가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참가는 아래로부터의 조직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총회 전 조직화 과정(pre-Assembly mobilization process)은 특히 풀뿌리 수준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회 자체가 하나의 운동인 셈이다. 예컨대 방글라데시와 이웃한 인도에서 온 참가자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집결지로, 집결지에서 국경으로, 국경에서 다시 학회장까지, 버스만으로 수일을 이동했다고 전했다.

국제미디어조직 피플스 디스패치(Peoples Dispatch)에서 제작한 영상을 통해, PHM이 이번 총회를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를 알 수 있다. “모두에게 건강을, 당장! (Health for All, Now!)”,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All the power to the people!)” 같은 구호가 그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에서 온 활동가들이 참가한 행사답게, 영상만으로도 다양성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영상 1> 제4차 민중건강총회 스케치 (1): 사람들의 삶이 이윤보다 먼저이기를 촉구하다.
([영상 바로가기](#))



<영상 2> 제4차 민중건강총회 스케치 (2):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영상 바로가기](#))

4. 제4차 민중건강총회(PHA4) 프로그램 자세히 보기

제4차 민중건강총회는 11월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 동안 4개 주제에 대한 본회의와 분과회의, 2개의 특별 총회, 5개 주제에 대한 주제별 전략토론,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직접 조직한 41개의 워크숍 등으로 진행되었다. 매일 오전에는 본회의와 분과회의가 진행되고, 오후에는 주제별 전략토론과 워크숍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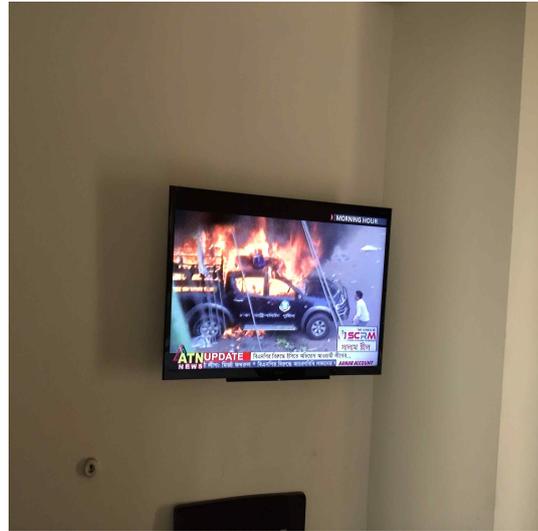
시민건강연구소와 노동건강연대의 활동가들은 4개 본회의에는 모두 참석하였지만, 분과회의와 주제별 전략토론, 워크숍은 같은 시간대에 여러 프로그램이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 참석하였다.

날짜별로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1. Day 0. 2018년 11월 15일

2018년 12월 30일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PHA4 개최 직전 일부 행사장에 대한 사용 금지와 여러 참가자들의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내렸다. PHA4가 취소될 뻔한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으나, PHM 방글라데시 측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되었던 공식 일정은 하루 연기되어 시작될 수 있었다. 해외참가자들에게 배정되었던 숙소가 재배정되고 행사장 이용계획이 전면 재조정되었으며, 예정된 일정들은 단축 또는 변경되어 진행되었다. 무사히 PHA4를 마친 참석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73개국에서 온 1,400여명의 일정을 전면 조정하여 행사를 진행한 PHM 방글라데시 조직위원회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초 총회는 [Gonoshasthaya Kendra \(GK\) Peoples Health Centre](#)의 캠퍼스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PHM 제휴 네트워크 일원이기도 한 GK는 캠퍼스 내 회의장과 숙박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현물 기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정부의 급작스런 조치에 따라 다른 시설을 대관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PHM 측에는 73,000유로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다. 현재 PHM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대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1〉 11월 15일 방글라데시 도심 집회를 보도하는 저녁 뉴스

공식 행사의 순연으로 11월 15일은 각 지역별로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 PHM Korea로 참석한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들과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들은 PHM 동남아시아와 태평양(SEAP) 지역 회의에 참여하여, 지역 내 다른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각 국가별 주요 이슈와 지역의 공동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 2〉 11월 15일 PHM 동남아시아와 태평양(SEAP) 지역 회의

4.2. Day 1. 2018년 11월 16일

제4차 민중건강총회 방글라데시 조직위원장인 파질 하산 아베드(Fazle Hasan Abed)의 개회사 선포로 PHA4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다. 개회식에서는 방글라데시 어린이합창단의 축하와 공연이 펼쳐졌다.

제4차 민중건강총회의 첫 본회의는 에두아르도 에스피노자(Eduardo Espinoza)가 건강과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상황에 대하여 정치경제 수준에서 조망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데이비드 샌더스(David Sanders)와 키아라 보디니(Chiara Bodini)가 2000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첫 번째 PHA부터 2005년 에콰도르 쿠엥카(PHA2)와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PHA3)을 거쳐 2018년 네 번째 PHA가 열리기까지의 민중건강운동의 경과를 소개하였다.

키노트(Keynote): Eduardo Espinoza (엘살바도르 보건부 차관)

민중건강운동 리뷰 1: David Sanders (PHM 조정위원회 공동의장)

민중건강운동 리뷰 2: Chiara Bodini (PHM 조정위원회 공동의장)



<영상 3> 제4차 민중건강총회 개회식 (1) 개회식과 개막공연
([영상 바로가기](#))



〈영상 4〉 제4차 민중건강총회 개회식 (2) 민중건강운동(PHM) 리뷰
(영상 바로가기: 발표자 1, 2)

이번 PHA4는 다음의 4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각 주제별 본회의 이후 세부주제를 다루는 분과회의가 이어졌다. 4개 주제의 본회의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동안 각 국가와 지역에서 PHM 활동에 헌신한 동지들의 업적을 기리는 <헌사> 세션이 있었다.

PHA4의 4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발전과 건강의 정치 경제적 지형
- 건강을 파괴 또는 증진하는 사회, 물리적 환경
- 정의롭고, 책무성 있고, 포괄적이며, 통합적이고, 네트워크화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건강체계 강화
- ‘모든 이에게 건강’을 위한 조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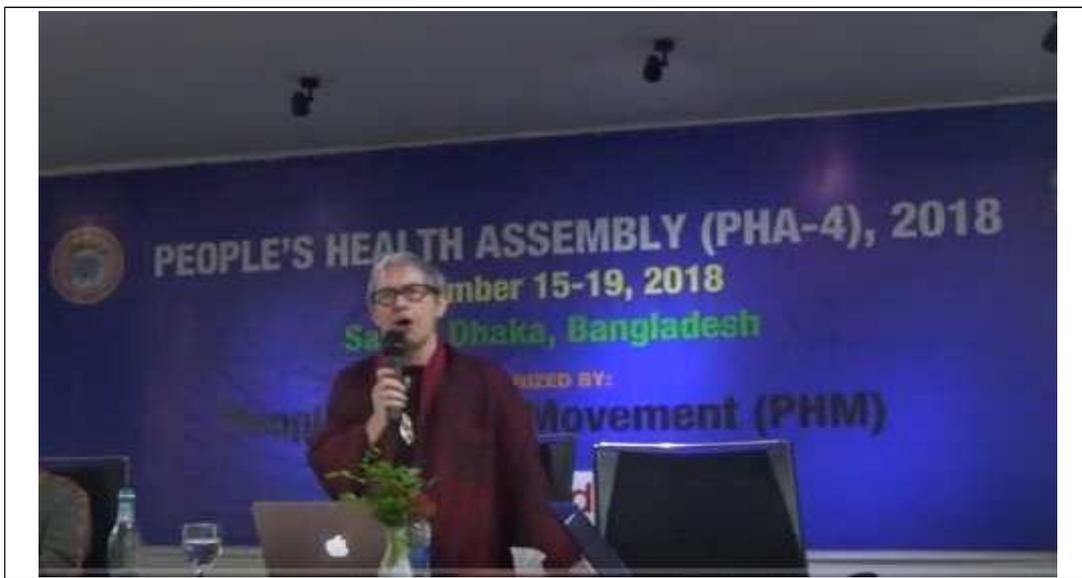
첫 번째 본회의 주제는 <P1. 발전과 건강의 정치 경제적 지형>이었다. 여기에서는 지배적인 경제개발모델에 대한 검토부터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권력관계, 무역 협정, 브레튼 우즈체제, 초국적 기업·민간 기금·국제 파트너십·종교적 근본주의세력과 같은 강력한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었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다시 묻고,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에 내포된 핵심적인 모순을 짚었다. 젠더 평등과 사회정의에 장애가 되는 지배적인 개발 패러다임과 지표가 강화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발표자 1: Jane Kelsey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발표자 2: Hossain Zillur Rahman (চিতা공 리서치 이니셔티브 활동가)

발표자 3: Amit Sengupta (PHM 지구촌 건강감시보고서 프로그램 대표)



〈영상 5〉 본회의 주제 1: 발전과 건강의 정치 경제적 지형

(영상 바로가기: [발표자 1, 2, 3](#))

이어진 분과 회의에서는 다음 4가지 의제를 다루었다.

P1.1 지구적 건강 거버넌스

P1.2 지속가능발전목표들 - 불평등한 체계의 지속?

P1.3 무역과 건강

P1.4 접령, 군사개입과 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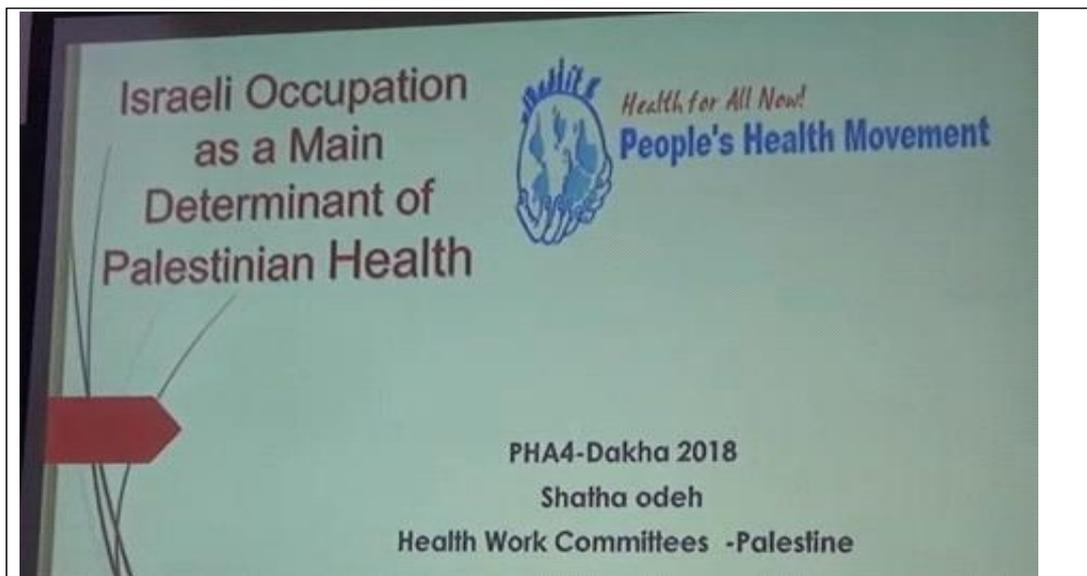
4.3. Day 2. 2018년 11월 17일

두 번째 본회의 주제는 <P2. 건강을 파괴 또는 증진하는 사회, 물리적 환경>이었다. 이 세션에서는 현존하는 사회 계급, 젠더, 인종, 카스트를 둘러싼 권력 동학에 더해지는 제노포비아, 전쟁도발, 불관용의 등장이라는 국제적 경향의 부상을 다루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비롯하여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안전한 고용과 괜찮은 주거 같은 사회적 결정요인에 접근하는데 불형평을 만들어낸다. 강제 이주, 무력충돌, 젠더 폭력, 기후 변화 그리고 환경 파괴는 점점 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표자 1: Shatha Odeh (팔레스타인, Health Works Committees 위원장)

발표자 2: Fran Baum (PHM 자문위원회 위원)

발표자 3: Shireen Huq (방글라데시 여성인권운동가, 여성건강권옹호단체 Naripokkho 설립자)



<영상 6> 본회의 주제 2: 건강을 파괴 또는 증진하는 사회, 물리적 환경

([영상 바로가기: 발표자 1](#))

([영상 바로가기: 발표자 2, 3](#))

이어진 분과 회의에서는 다음 4가지 의제를 다루었다.

P2.1 젠더와 건강

P2.2 계급, 카스트, 소수종교, 인종을 고려한 형평성과 건강

P2.3 기후변화, 환경 파괴

P2.4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

P2.5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영향

4.4. Day 3. 2018년 11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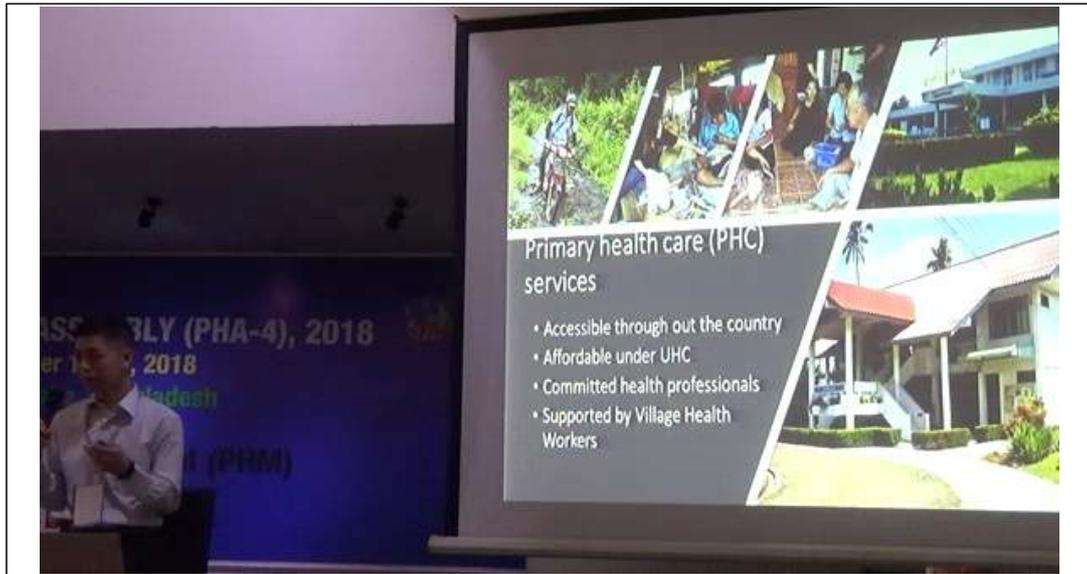
세 번째 본회의 주제는 <P3. 정의롭고, 책무성 있고, 포괄적이며, 통합적이고, 네트워크화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건강체계 강화>였다. 이 세션에서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이 국제보건정책에서 인기 있는 슬로건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논쟁적이라는 점을 다루었다.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PHC)와 UHC 접근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자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일차보건의료 부문의 구축과 지원을 강조하고, 계획과 책임성, 예방에서 지역보건인력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요청한다. 반면 UHC 담론은 재정적 보호에 초점을 두고 민간과 공공 공급자들에 의한 ‘구매된’ 돌봄이 핵심주장이다.

발표자 1: Syed Modasser Ali (방글라데시 Mujibunnessa Eye Hospital 설립자, WHO 집행위원)

발표자 2: Rapeepong Suphanchaimat (태국, 보건부)

발표자 3: Mauricio Torres (콜롬비아국립대학)

발표자 4: Kedar Baral (네팔, 파탄 보건과학아카데미)



〈영상 7〉 본회의 주제 3: 정의롭고, 책무성 있고, 포괄적이며, 통합적이고, 네트워크화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건강체계 강화

([영상 바로가기: 발표자 1, 2](#))

([영상 바로가기: 발표자 3, 4](#))

이어진 분과 회의에서는 다음 5가지 의제를 다루었다.

- P3.1 건강체계 강화와 자원조달
- P3.2 보건인력
- P3.3 의약품 접근
- P3.4 선주민 건강과 웰빙
- P3.5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사유화/민영화

4.5. Day 4. 2018년 11월 19일

네 번째 본회의 주제는 <P4. ‘모든 이에게 건강’을 위한 조직화>이었다. PHA4 마지막 본회의였던 이 세션에서는 ‘모든 이에게 건강’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수많은 집단, 활동가들, 비정부조직, 지역사회기반 조직들의 다차원성을 보여주었다. 이 세션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상호학습의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발표자 1: Alexis Benos (그리스, 테살로니키 아리스토텔레스대학)

발표자 2: Roman Vega (푸에르토리코, 의사)

발표자 3: Sulakshana Nandi (인도 뉴델리, Public Health Resource Network)



〈영상 8〉 본회의 주제 4: ‘모든 이에게 건강’을 위한 조직화
(영상 바로가기: [발표자 1, 2, 3](#))

이어진 분과 회의에서는 다음 4가지 의제를 다루었다.

- P4.1 지역사회 조정과 모니터링
- P4.2 연대에 기반을 둔 대안적 체계
- P4.3 의약품 접근 보장을 위한 조직화
- P4.4 공적 체계의 성공적 사례들

PHA4 마지막 날이었던 이 날 오후에는 개최국인 방글라데시와 알마아타 선언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특별 총회가 열렸다.

특별 총회 1. Special Plenary on Bangladesh ([영상 바로가기](#))

발표자 1: M. Mushtuq Hussain (파키스탄, 도우대학)

발표자 2: Rashid-E-Mahbub (방글라데시, 다카대학)

특별 총회 2. Special Plenary on Alma Ata Declaration ([영상 바로가기](#))

발표자 1: Zafrullah Chowdhury (방글라데시 공중보건 활동가, GK 설립자)

발표자 2: David Sanders (PHM 조정위원회 공동의장)

발표자 3: Maria Zuniga (니카라과와 중앙아메리카 지역보건활동가)

발표자 4: Tedros Ghebreyesus (Video message) (WHO 사무총장)

발표자 5: Paul Rutter (유엔아동기금(UNICEF))

4.6. PHA4 주제별 전략 토론

PHA4의 4가지 주제 가운데, 특별히 전략적 토론을 통해 PHA4의 결과물로 발표하려는 이슈에 대해서는 17일과 18일에 걸쳐 집중토론이 진행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각 단체에서의 활동 경험, 각 국가별 상황에 대하여 공유하고, 해당 문제의 접근과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전략과 국제협력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들은 ‘무역과 건강’ 토론과 ‘젠더와 건강’ 토론에 참여하여 한국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주제별 전략 토론 1: 건강체계

주제별 전략 토론 2: 식량과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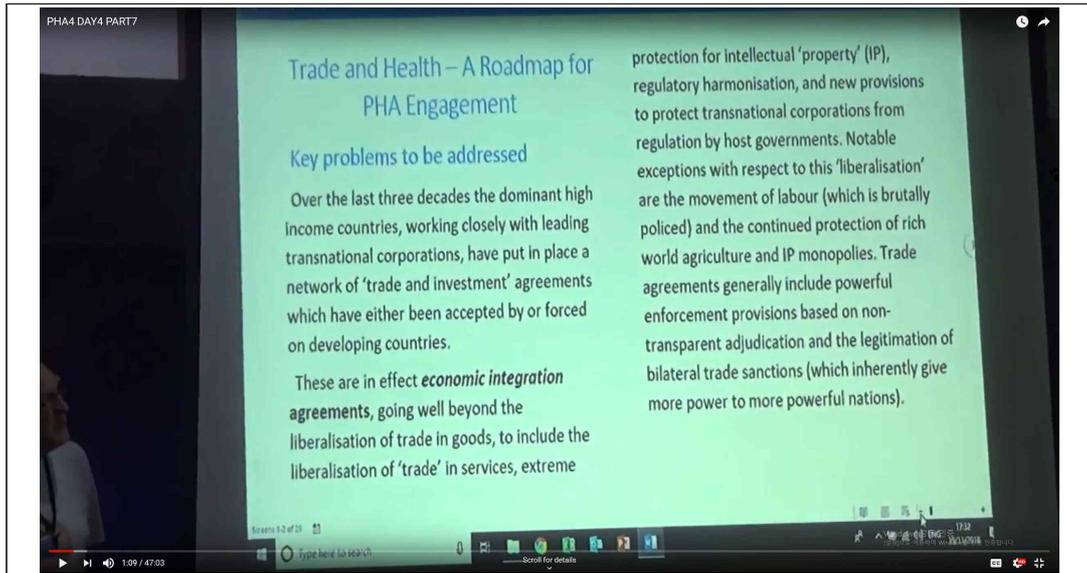
주제별 전략 토론 3: 무역과 건강, 의약품 접근

주제별 전략 토론 4: 젠더와 건강

주제별 전략 토론 5: 환경과 개발

이들간의 공식 토론일정 외에도 이후의 추가 회의와 의사진행을 통해 주제별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취합하여 11월 19일, PHA4의 마지막 세션에서 5개 주제에 대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발표순서는 무역과 건강([1:30~](#)), 건강체계([11:15~](#)), 식량과 영양([16:30~](#)), 젠더와 건강

(21:10~), 환경과 개발(29:30~36:30)이었고, 추가로 발표된 주제는 이주, 군사갈등과 건강(37:04~43:50)이었다.



〈영상 9〉 제4차 민중건강총회 5개 주제별 성명서 발표
(영상 바로가기)

4.7. PHA4 워크숍 프로그램

16일부터 18일까지 각 국가별 PHM, 건강권 활동단체,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41개의 워크숍을 열어 자신들의 활동 경험을 소개하고 교훈을 공유하였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지역적, 국제적 연대를 도모할 수 있었다. 워크숍의 주제와 해당 워크숍 기획자/팀은 다음과 같다.

※ 워크숍 주제와 해당 워크숍 주최자

주제	주최자
동물원성 결핵 - 인도와 독일의 경험	Jagruti
스리랑카에서의 건강권: 투쟁으로 성공하기	PHM Sri Lanka
건강권, 식량권, 아동권리의 실현과 사회 변혁	Viva Salud, Belgium
안전한 낙태에 대한 권리: 중요성 인식, 연대 구축과 변화를 위한 조직화	Asian Pacific Resource and Research Centre for Women (ARROW)

주제	주최자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	UBINIG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에 관한 GK의 경험	Gonoshashthaya Kendra (GK)
보건의료시설에서의 위생(WASH)	Water Aid-Bangladesh
농업에서의 건강위험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보건의료 자원조달	Gonoshashthaya Kendra (GK)
방글라데시의 노인 건강권	Resource Integration Centre (RIC)
지역사회 보건의료 노동자의 생각과 경험 - 알마아타로부터 21세기로의 성찰	Medico International
지역에서의 항생제 내성이라는 도전	Third World Network (TWN) and Health Action International-AP (HAIAP)
왜 어떤 국가는 GDP에 비해 평균 수명이 좋은가?	Punching Above Weight Network
Sumak Kwasy 또는 Buen Vivir: 대안적 문명: 포스트자본주의 건설과 논쟁	PHM Latin America
튀니지의 공공보건의료 옹호와 강화를 통한 건강권	PHM Tunisia
민간보건의료 분야의 공적 책임성 강화와 환자권리 보호	SATHI, India
위생(WASH)과 건강 문제 - 17개 SDGs 중 첫 번째: 가난한 어머니를 위한 모성수당	Development Organization of the Rural Poor (DORP)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PHM Ghana, South Africa, Kenya, Tanzania, Uganda and Zimbabwe
경제적 긴축정책과 그것의 건강 영향	Instituto de Estudios Socioeconomicos-INESC
필수 의약품 접근과 필요에 따른 연구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	MEZIS Germany
‘모든 이에게 건강’ 조직화 방법 다시 생각하기 - 태국의 경험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fice (NHCO), Thailand

주제	주최자
아프리카에서 일차보건의료와 보편적 의료보장의 정치학	PHM Ghana, South Africa, Kenya, Tanzania, Uganda and Zimbabwe
튀니지 간호사와 의과대학생들의 운동	PHM Tunisia
공약을 위해? 국가보건체계의 강화 또는 약화에서 국제보건협력의 역할	Medicos Mundi International (MMI)
지구적 건강 거버넌스: 건강불평등의 정치적 기원: 무역과 투자, 채굴, 보편적 의료보장	The Independent Panel on Global Governance for Health, University of Oslo
월경위생관리	Water Aid - Bangladesh
개발도상국가에서 지역사회 보건인력이 직면하는 도전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라틴아메리카의 전래 지식과 관행들	PHM Argentina
공장 보건 증진자들: 방글라데시의 경험	Hesperian Health Guides
쿠바 라틴 아메리카 의과대학: 지배적인 시장 주도적 의학교육에 대한 저항 사례	PHM US
인공투석에 관한 GK의 경험: 콕스 바자르 지역 로힝야 난민의 건강	GK Nagor Hospital
여성 친화적 병원 이니셔티브 - 더 나은 형평성 달성의 방법	Naripokkho
재생산 건강 워크숍: 청년 포용성	Right Here Right Now (RHRN) - Bangladesh Platform
저항과 회복탄력성으로서의 전통의학	Health Swaraaj Samvaad
팔레스타인 건강보험과 사회정의: 접령지 팔레스타인에서의 사회운동과 건강권: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그들의 건강 수준	Bisan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아프리카에서 상업적인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PHM West and Central Africa circles
모로코의 건강권	Moroccan network on the defense of the right to health
지식 정치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건강체계의 비전: 기술적 선택, 체계 설계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근거'	Health Swaraaj Samvaad
저개발국 "졸업", 특허와 의약품 접근: 방글라데시에서 독립적 제네릭 의약품 생산의 미래	Asia Pacific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APN+)

5. 나오며

혹자는 민중건강총회(PHA)를 ‘보건 분야의 세계사회포럼’이라고 표현한다. 전 세계 활동가들이 참가하는 하나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민중건강총회는 세계사회포럼을 연상시킨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세계사회포럼)와 “모두에게 건강을, 당장!”(민중건강총회)이라는 강하고 희망찬 구호도 닮았다.

그러나 민중건강총회도, 세계사회포럼도 참가해 본 적 없는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은, 방글라데시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참 막막했다. 민중건강총회(PHA)는 물론이고 민중건강운동(PHM)도, 그 실체가 분명하게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었다. 총회는 PHM의 핵심 활동이고, 연구소의 총회 참가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총회를 참석하는 동안은 연구소 연구원들 모두 고민과 토론의 연속이었다. 한국의 이슈와 경험을 더 널리 알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얘기는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건지가 논쟁이었다. 예컨대 ‘젠더와 건강’ 측면에서 한국의 디지털 성폭력 문제와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직접 한 운동도 아닌데’, ‘인신매매와 월경위생을 이야기하는 이들 앞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웬 말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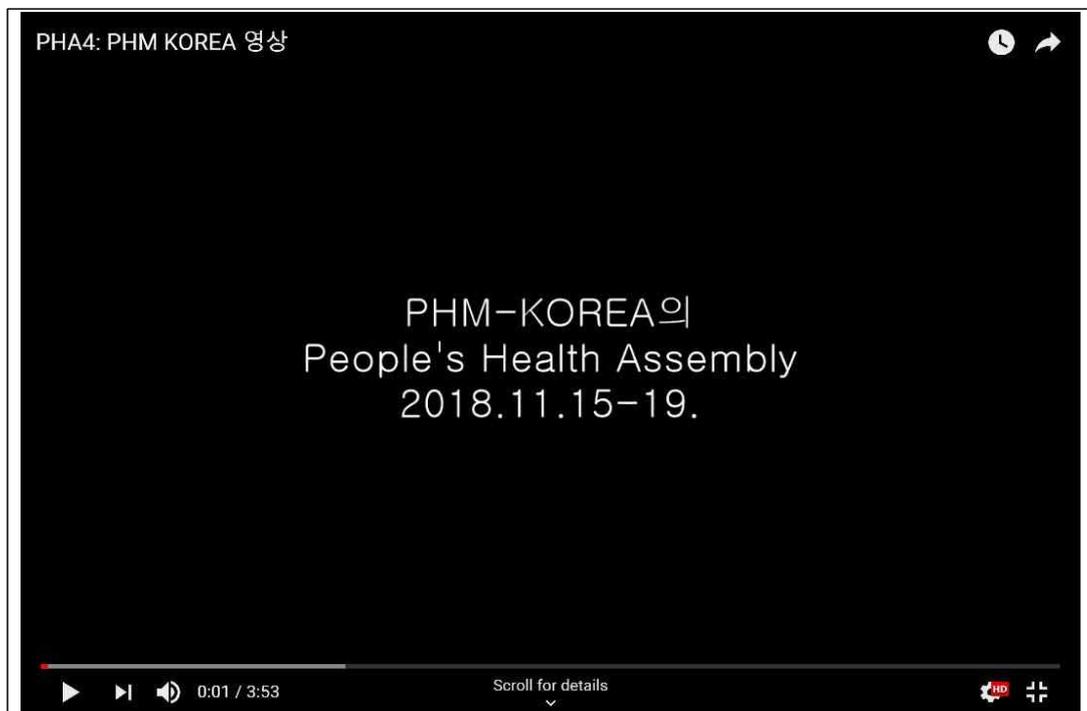
한국의 이슈와 경험을 공유할 ‘언어’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의 건강사회운동 담론 대부분이 다분히 한국 중심적이고, 충분히 ‘국제주의적 감각’으로 다듬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무역과 건강, 의약품 접근’ 정도가 예외일 텐데, 이 역시 한국이 피해자였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와, 가해자가 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반대는 운동과 담론의 발전 정도가 하늘에서 땅 차이다. PHM Korea가 속해 있는 PHM SEAP 지역 회의에서 RCEP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지만,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PHM이라는 하나의 운동으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데는 참가자들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우리는 튀니지의 공공보건의료 옹호와 강화 운동으로부터, 크로아티아의 재생산권 운동으로부터,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적 발전 모델과 건강체제로부터 기시감을 느끼고 영감을 얻었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의 위협을 견뎌내며 여성의 건강과 삶을 위해 투쟁하는 필리핀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가슴 깊은 곳에서 연대의 눈물을 흘렸다.

PHA4에서 만나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대다수 활동가들은, 다음 PHA가 있을 5년 뒤까지, 어쩌면 영영, 온라인상에서만 연락을 나눌 것이다. 그러나 PHA4 이

후 불과 한 달여 사이, PHA4 기간 있었던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을 알리고, 사과와 함께 단호한 입장과 대처를 약속하는 PHM의 성명 ([바로가기](#)), PHA4에도 참가했던 PHM 지구촌 건강감시보고서(GHW) 프로그램의 대표이자 PHM India의 일원인 Amit Sengupta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바로가기](#))에 뒤이은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상의 애도 물결, 니카라과 정부에 의한 민중건강운동 억압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PHM의 성명 ([바로가기](#))이 있었다. 모두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루어진 운동들이다.

PHM Korea의 운동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으며 그 문은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다. 많은 것을 할 수도, 혹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PHM Korea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 나갈지는,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달려 있다. 함께 할 이들을 기다린다.



<영상 10> PHM Korea의 PHA4 참가기 영상 스케치
([영상 바로가기](#))

<글상자 4> PHM Korea와 함께 할 개인 또는 단체를 기다립니다.

PHM Korea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강권 운동을 세상에 전하고 연대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특히, 노동자 건강과 안전 보호,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 소수자 건강권 보장, 세계화/무역의 건강 영향, 건강권 개념에 기초한 국제보건 등이 주요 관심 주제입니다. 그간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내용을 채워주고, 연구소의 몇몇 회원과 자원 활동가들이 이를 영문과 스페인어로 옮기는 작업을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PHM Korea는 국제연대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건강권 운동을 해외에 알리고 싶으신 모든 개인과 조직의 참여에 열려있습니다. 자료 수집이나 번역에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면 이 역시 대 환영입니다.

- 블로그: <http://phmovement.or.kr>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HMKorea>
- 트위터: [@ PHM_Korea](#)
- 이메일 연락처: phmkorea@gmail.com

시민건강이슈는...

시민건강연구소의 상근연구원 뿐 아니라

회원/비회원도 필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3길 36, 2층

전화 : 02-535-1848 / Fax : 02-581-0339

홈페이지 : <http://health.re.kr> / 전자우편 : people@health.re.kr

후원계좌 :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연구소